


공동체 소식



사순 제2주일

하느님,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따르라고 명하셨으니,
하느님의 말씀으로 저희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영혼의 눈을 맑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2월 기도지향

- + 류기범 요셉, 신혜경 마리아 가정
- + 장시우 시몬, 장남순 올리안나 가정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 안내

- 시간 : 매 사순주일 교중미사 40분 전에
'십자가의 길 기도'를 공동으로 바칩니다.

본당 평협회

- 일시 : 오늘 교중미사 후
- 장소 : 나자렛관(본당회관)

총구역회 모임(구역장 모임)

- 일시 : 다음 주일(2/28) 교중미사 후
- 장소 : 나자렛관(본당회관)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 2/27(토) 오후 5:30.

캔사스대교구 '자비의 특별희년 나눔초대 -Archbishop's Call to Share'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나눔에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이미 많은 신부님들이 동참하고 있고,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 -RESPONDING (<https://www.calltoshare.org/>).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122	211	169	490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문예나 요안나	안광민 아교보
	정예진 한나	김준영 요셉
다음주일	정예찬 미카엘	정병훈 보니파시오
	김정원 안젤라	문호진 안토니오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주연 세실리아	박혜정 카타리나	정병훈 보니파시오
차주	김명은 안젤라	문석찬 요셉	백문주 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금주	김시연, 신혜경, 김말자
차주	백문주, 최은미, 박옥희

헌금 봉사자

금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요한
차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2/14	64명	394불	3,000불
조지연, 이우석, 김정원, 안병환, 김정훈, 고영방, 김화년, 김진미, 정수한, 정지현, 김대연, 김태중.(총 12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사순 제2주일입니다.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변모에 관한 복음을 듣습니다. 부활을 잇는다면 사순 시기는 의미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의 길을 함께 따라 나섭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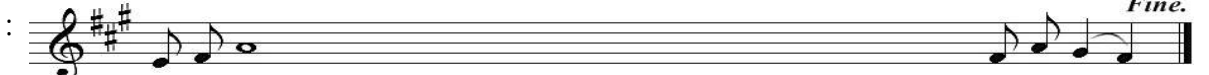
성화해설

그리스도의 거룩한 변모 (라파엘로, 1518-1520, 바티칸 박물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스럽게 변모된 예수님은 번쩍이는 흰옷을 입은 모습이다. 이 영광스런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은 감격한다. 이어 하늘 위로 역동적으로 피어오르는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루카 9,35)라는 말씀이 울린다. 라파엘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변모를 바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구름 속에서 울려오는 하느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것처럼 그려내고 있다.

-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 서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15,5-12,17-18
<하느님께서서는 충성스러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다.>

화 답 송 : 

-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다.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라?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라? ◎
-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 주소서. 자비를 베푸시어 응답하소서.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신 주님, 당신을 생각하나이다.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
-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시고, 분노하며 당신 종을 물리치지 마소서.
당신은 저를 돕는 분이시옵니다.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
-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3,17-4,1<또는 3,20-4,1>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28-36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졌다.>

쉐 마

하느님의 의로움



고대 중동에서는 임금들 간에 서로 계약을 맺을 때 희생 제물을 가져와 반으로 쪼개 뒤 계약 조건을 말하며 쪼개어진 제물 사이로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둘 가운데 누구라도 계약을 어기면 이런 식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맹세했다고 합니다. 오늘 1독서에서 하느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장면도 이와 유사한데,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주님께 가져와 반으로 자른 뒤 잘린 반쪽들을 마주 보게 차려 놓습니다. 그리고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연기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개 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갑니다. 여기서 화덕과 횃불은 하느님을 상징합니다. 하느님께서 화덕과 횃불 모습으로 쪼개 놓은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점이 발견됩니다. 계약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갈라진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계약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창세기 15장은 하느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을 이야기하는 대목이라기보다 하느님이 일방적인 약속, 곧 하느님의 언약에 관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계약을 맺으시는 것도 아브라함이 청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 편에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계약에 당신 스스로를 얹어매시는 하느님. 여기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려는 하느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오늘 2독서에서는 이런 하느님의 모습이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당신 아드님의 피로 계약을 맺게 되었고, 그분 덕분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이루고자 하셨던 하느님의 충실하심 덕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 당신 약속에 충실하신 모습을 두고 하느님의 의로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대개 세상의 의로움은 착한 일 하면 상주고, 나쁜 일 하면 벌주는 그런 의로움이지만, 하느님의 의로움은 하느님께서 당신 약속에 충실하신 것, 곧 우리의 죄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당신 약속을 기필코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충실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느님이시기에 우리 죄마저도 용서해 주십니다.

물론 하느님께서 의로우시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복음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덕분에 누리게 될 영광만을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서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아버지의 의로움을 본받아서 항상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복음의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의롭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느님은 언제나처럼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당신처럼 의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느님의 의로움을 기억하고, 그분의 의로움에 우리를 내어 맡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갑시다. 그러면 2독서가 이야기 하듯이 예수님께서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 곧 오늘 복음에서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 영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주춧돌

신앙의 교사인 에즈라

B.C 587년 이스라엘은 함락되고 사람들은 바빌론으로 끌려와 포로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왕이 바빌론을 점령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생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에즈라 사제도 이스라엘에 다녀옵니다. 에즈라는 주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규정과 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에즈라에게 칙령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에즈 7,1-26

에즈라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에즈라는 하느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수많은 백성과 함께 길고 위험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실제로 많은 도적과 적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넉 달 가량의 긴 여정을 끝내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즈라는 어떤 보고를 듣고 좌절감에 빠지게 되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1에즈 8,15-9,4

율법은 본래 가르침이란 뜻으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느님 백성의 생활과 행위에 관한 하느님 명령입니다. 에즈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느님의 율법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즈라의 율법낭독과 해설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공동체로 다시 출발하게 되었고 율법 중심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은 가장 중심이 됩니다. 율법에 대해 설명한 성경 말씀을 찾아 읽어볼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신명 4,1-49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이방인의 신을 섬기는 등,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에즈라는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하느님께 두 팔을 들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온 백성도 따라 울면서 통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에즈라의 신앙의 부흥은 율법의 가르침대로 사는 삶, 율법을 그대로 실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능력 중에 으뜸은 무엇보다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즈라처럼 풍부한 학식과 지혜, 결단력을 갖춘 사람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입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복음묵상

같은 밥



같은 한 그릇의 밥을 앞에 두고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해준 사람을
누군가는 그것을 길러낸 농부를
누군가는 모든 것을 주신 하느님을 떠올리듯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서
하느님을 떠올리기관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루카 9,32)